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18년 2월 26일 월요일 (음 1월 11일) 제1996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정핵심사업 성과 극대화

전북도, 출연기관 · 지방공기업 기관장 경영성과 목표 계약 체결

올 기관장 성과목표 기관 평균 11건… 내년도 경영평가시 달성도 점검

전북도는 최근 전북도 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기관장 13명과 2018년 경영성과 목표 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출연기관의 설립목적 달성 및 성과창출을 위해 기관장이 해당 연도에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달성 정도를 다음 연도 기관장 보수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석인 전북연구원장과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은 추후 별도로 성과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018년 경영성과 목표는 기관 설립목적에 부응하고 삼락농정 토탈관광 등 도정 핵심과제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전적으로 설정하게 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소관 지도감독부서와 소통하고 함께 고심해 왔으며 도 성과관리과는 기관별 목표 내용을 검토해 기관 본연의 역할 수행에 충실하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좀 더 도전적인 목표가 설정되도록 유도했다.

출연기관 및 공기업 기관장 13명은 143건의 목표를 설정하여 기관 평균 11건을 2018년 기관장 성과목표로 결정했다.

이 중 신규과제는 전체 24건(16%)으로 환경변화 등 기관에 새롭게 요구되는 과제를 반영한 결과다.

이번 성과계약은 내년도 경영평가시 달성도를 점검하게 된다.

기관장 목표달성에 대한 계량화된 실적평가와 더불어, 기관의 중장기적 운영을 위한 비전과 경영전략,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한 정도를 심층 면접을 통해서 평가할 계획이다.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장 기본연봉 및 성과급에 반영하고 부진기관의경우 기관장이 직접 경영평가위원회에 출석해 경영개선계획을 보고하는 등 평가결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해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회계분야 등 공통적으로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는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기관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평소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기관혁신을 통한 경영개선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주문해왔으며 정부 및 도의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소통하고 도민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장의 의지와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날 성과계약을 체결하며"도 출연기관은 도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접점으로, 공직자 이상의 청렴성과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며 "도가 2018년에도 중점 추진하는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핵심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중앙공모사업 유치 등에 적극 대응하는 등 도정의 전면에서 앞장서서 노력해 줄 것"을 전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생진원 "발효엑스포 사후관리로 지역 식품기업 매출 올라"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하 생진원)이 발효식품엑스포 참여 기업의 연중 마케팅을 위해 지난해 신설한 엑스포 사후관리 지원 사업이 지역 식품기업의 매출 성장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진원은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추진한 결과 지역 식품기업들의 매출액이 크게 신장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23일 밝혔다.

생진원은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분당 AK백화점에서 수도권 오프라인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전북과 함께하는 진짜 맛여행'이란 컨셉으로 '전북 우수 발효식품 특별전'을 추진했다.

총 12개사가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수도권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약 4600만원의 매출을 냈다. 여기에 입소문을 통해 프로모션 종료 이후에도 온라인 쇼핑 거래가 늘어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발생했다.

분당 AK백화점 관계자는 "행사를 진행한 시기가 유통업계에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장 평균 매출 대비 130% 정도 증가했다"며 "앞으로 전북 우수 발효식품 프로모션을 정례화해 경쟁력 있는 다양한 전북 식품을 발굴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생진원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인터파크, G마켓, 옥션, 위메프 등 오픈마켓과 우체국 쇼핑몰을 활용, 전북 우수 상품 설 명절 판매전을 구축하고 할인쿠폰 지원 등 온라인 프로모션을 추진했다.

그 결과 총 47개사의 농식품 기업이 참여해 약 2억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오는 3월 말까지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유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매출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번 우체국 쇼핑몰 프로모션에 입점한 완주 '천연'의 박윤희 이사는 "참가 기업을 위해 연중으로 다양한 지원을 해줘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번 프로모션으로 평소대비 약 4배 이상 매출이 늘어서 매우 기쁘고, 신규 고객들도 많이 확보했다. 앞으로 판로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생진원 김동수 원장은 "발효식품엑스포가 1년에 한번 단순하게 참가하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전북 식품 기업들에게 따뜻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바이어초청 상담회, 디자인 개발지원 등 다양한 연중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한 프로모션, 상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6회째를 맞는 2018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오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는 지난 23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기독교연합회 세계종교위원회 전북대표인 백남운 목사,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구담 스님, 원불교 전북교구장 김혜봉 교구, 천주교 전주교구 박성팔 총대리 신부, 김천종 · 강갑석 · 김인수 · 최성일 전주한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한지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내 4대 종교 전주한지 산업화 '맞손'

전주시, 천주교 · 불교 · 원불교 · 기독교 등 종단과 협약 체결

고서 복본 · 출판 · 행정용지 제작 등에 공급 재정 지원 힘쓰기로

전북지역 4대 종단이 전주한지로 중요한 문서를 복원하고 임명장·표창장·세례증·법위증·탑본 체험 등 각종 출판물을 발간하기로 하면서 산업화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앞서 전주시는 바티칸교황청이 소장중인 편지 기록물과 단 한 권만 남아있던 원불교의 초기경전 등을 전주한지를 활용해 원본과 똑같이 만든 복본을 만들어 기증하는 등 전주한지 전통을 계승하고 산업화와 세계화를 이뤄내기 위해 힘써왔다.

시는 23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기독교연합회 세계종교위원회 전북대표인 백남운 목사,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구담 스님, 원불교 전북교구장 김혜봉 교구, 천주교 전주교구 박성팔 총대리 신부, 김천종·강갑석·김인수·최성일 전주한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한지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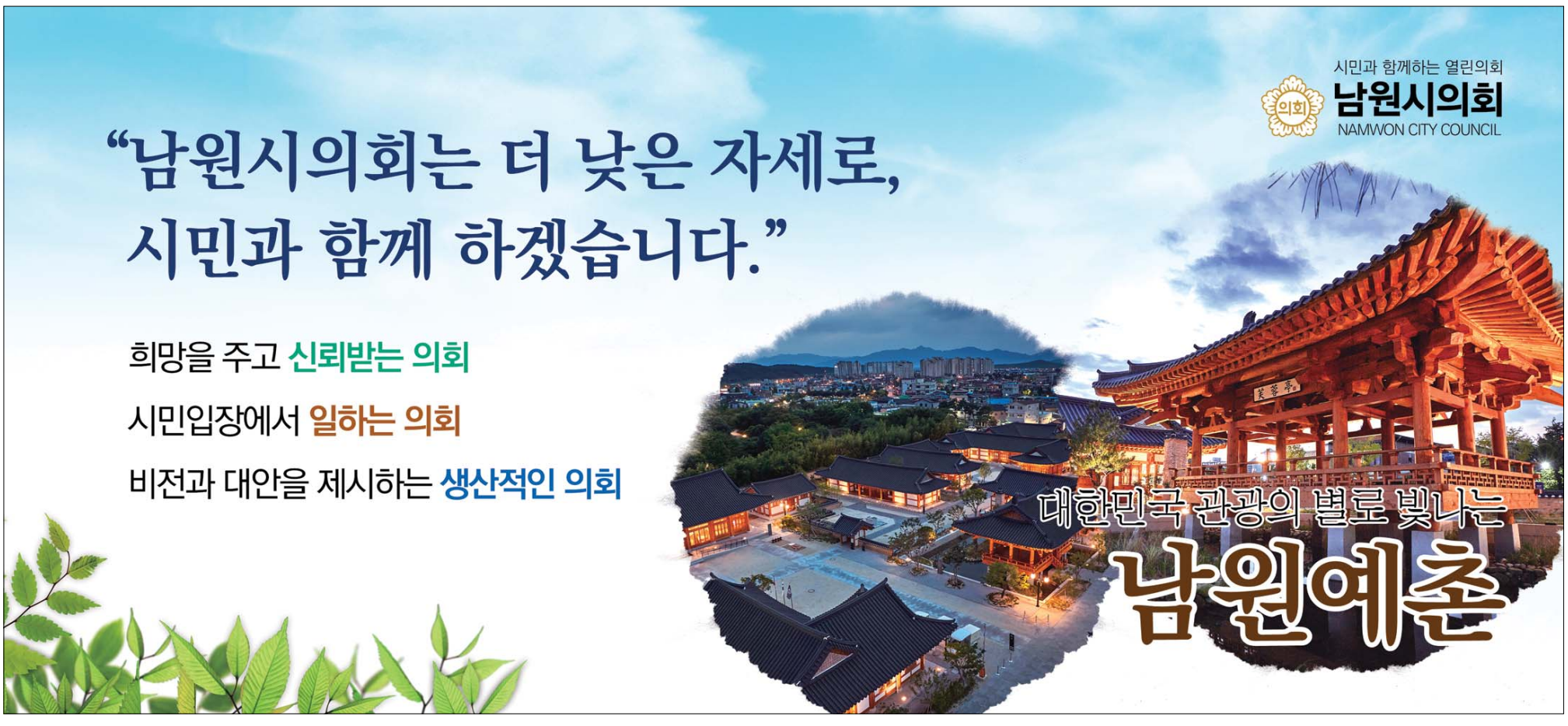
협약에 따라 기독교와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전북지역 4대 종교기관에서는 주요 문헌 복본 시 전주한지를 우선 사용하고 전주한지로 각종 증서와 문서, 서적 제작 등 적극적인 수요 창출로 한지 소비 활성화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각 종교기관에서 전주한지를 활용해 시행하는 고서 복본 사업과 출판 사업, 행정용지 제작 등에 양질의 전주한지를 공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전주한지장인들은 전주시와 전북지역 4대 종교의 한지발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한지 소비 촉진 등 한지 산업 활성화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시는 전승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전주 전통한지 제작 기능의 맥을 되살리고 전주전통한지의 보존·계승을 위해 '전주시 한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전주한지장 발굴·지원하고 있다. 또한 양질의 전주한지를 꾸준히 생산할 수 있도록 주요 원료인 닥나무 재배 단지를 조성, 국내 최초의 집적화된 전통한지 생산지인 전주시 흑석골 일대에는 전통한지 생산 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전주한지 산업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기관과 지자체, 대학, 종교기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통한지 홍보 및 판매 활동도 해왔다.

아울러 전주한지 세계화를 위해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 연출 사업 등을 펼치고 한지의 우수성에 대해 널리 홍보한 결과 △교황청 기록물 전주한지 복본 △루브르 박물관 소장문화재의 복원에 전주한지 활용 △유네스코 한지노트 전달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한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 차원의 보존 노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한지 사랑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한지 수요가 창출돼 한지 생산이 지속되고 전주한지의 명맥을 이을 후계자도 양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종교기관은 물론 정부기관과 지자체, 각종 기관·단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